

보도시점 2023. 10. 31.(화) 14:00 배포 2023. 10. 31.(화) 14:00

추경호 부총리, 중동순방 경제성과 극대화 및 해외수주 금융·세제 지원 통한 경제회복세 뒷받침

-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 중동 고위급 교류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이행 -
- 23.3분기 해외수주 실적 점검 및 4분기 중점과제 점검 -
- 인태경제체제(인태경제프레임워크, IPEF) 6차 협상결과 및 추진계획 논의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31(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❶중동 고위급 교류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❷23.3분기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4분기 중점과제, ❸인태경제체제(인태경제프레임워크, IPEF) 6차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 및 의결했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경기회복세 뒷받침을 위해 중동 고위급 교류 경제분야 성과별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23년 350억불 수주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11월에 진행되는 인태경제체제(인태경제프레임워크, IPEF) 7차 협상에 우리 입장을 협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붙임]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총괄]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심현우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44-215-7611)
		담당자	사무관	정석환 (044-215-7612)

[안건별 담당자]

안건		담당자	연락처
❶ 중동 고위급 교류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총괄> 기재부 국제경제과	김봉준 과장 김미진 사무관	044-215-7630 044-215-7638
	<총괄> 기재부 국제경제과	김봉준 과장 박효은 사무관	044-215-7630 044-215-7631
❷ 23.3분기 해외수주 실적 점검 및 4분기 중점 추진과제	<총괄> 산업부 인태통상기획팀	김이경 팀장 노정림 사무관	02-2100-1370 02-2100-1376
	<협조> 기재부 통상정책과	이재완 과장 하정현 사무관	044-215-7670 044-215-7672
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6차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10.31)

□ 지금부터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및 대응방향]

□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 지난 8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3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한 데 이어,

○ 오늘 발표된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39개월 만에 최초로 생산·소비·투자 등 전 부문이 증가하였고,

-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등 생산을 구성하는 4대 부문 실적도 90개월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 10월 수출¹⁾도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등 경기 개선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러한 회복흐름 속에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외 불안요인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수출(전년동월비, %): ('23.5)△15.4 (6)△6.0 (7)△16.1 (8)△8.1 (9)△4.4 (10.1~20)4.6

[❶ 중동 고위급 교류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 정부는 중동진출 50년을 계기로 중동 BIG3 국가인 UAE·사우디·카타르와의 대한 대통령 순방과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전통협력 분야와 신산업을 아우르는 우리 경제의 거대한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 UAE와는 300억불 투자자금 국내유입 가속화, CEPA²⁾ 타결 선언, 항공편 40% 증대 등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 지난해 사우디와 290억불 경제협력 MOU 체결에 이어, 최근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 63개 계약 및 MOU, 총 202억불의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 총 792억불의 정상외교 성과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新중동붐'으로 이어지도록 ❶에너지, ❷인프라, ❸신산업, ❹수출기반, ❺투자협력 등 5대분야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우디와의 530만 배럴 원유 공동비축사업³⁾을 '28년까지 이행하고, 청정에너지 협력을 위해 수소 MOU⁴⁾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굳건해진 인프라 협력이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와 사우디 국부펀드 간 금융 협력계약, 수출입은행과 UAE 수출신용보험 간 금융지원 MOU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첨단 제조업, 디지털, 스마트팜, 화장품 등 신산업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 위원회⁵⁾ 및 정부간 경제대화⁶⁾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한-UAE CEP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 국가로부터의 추가적인 투자 유치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2)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FTA와 동일

3) 아람코가 530만 배럴의 원유를 국내 저장하고, 수급 비상시 석유공사의 우선구매 보장

4)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韓 산업장관-사우디 에너지장관), 블루 암모니아 생산 협력 의향서(한전·포스코·롯데케미칼- 사우디 아람코)

5) 산업부 장관 주재로 관련 기업 및 협·단체가 對 중동 경제협력 과제 논의

6) UAE 경제공동위(기재부),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산업부),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체(산업부)

[② '23.3분기 해외수주 실적 점검 및 4분기 중점 추진과제]

- 올해 해외수주는 1~3분기 기준 235억불로 '15년 이후 최고실적⁷⁾을 보이고 있으며, 금번 순방계기로 24억불 규모의 자푸라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남은 4분기에 수주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금년 350억불 수주 목표달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해외수주 강화를 위해 ①중동, ②우크라 재건, ③무탄소 에너지, ④금융·세제 등 4대 분야 정책과제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대통령의 중동순방 성과확산과 함께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EDCF 기본약정 협의를 연내 완료하고, 11월 중 재건정보 공유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이번달 출범한 무탄소(CF) 연합⁸⁾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수소플랜트 및 원전설비 등 수주 잠재력이 높은 무탄소에너지 분야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은의 법정자본금 증액과 특별계정 확충⁹⁾, 해외건설 근로자와 기업 세제혜택 확대¹⁰⁾ 등 금융·세제 지원방안도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6차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작년 5월 출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¹¹⁾가 올해 마지막 협상인 7차 협상(11월, 美샌프란시스코)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공급망 분야 최초 협정 타결에 이어, 연내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무역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부문에서도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협상 최종결과가 가시화되는 만큼, 금번 7차 협상에서도 우리 입장을 협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7) 1~3분기 해외수주액(억불): ('15) 345 → ('16) 187 → ('17) 213 → ('18) 222 → ('19) 165 → ('20) 185 → ('21) 174 → ('22) 224 → ('23) 235

8)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23.9월)한 글로벌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구

9) 국가신용도가 낮아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低신용국의 사업 수주 지원계정, 내년 정부 1,000억원(24년 예산안 반영) 및 수은 1,500억원 확충 추진

10) 해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 및 해외 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23년 세법개정안 반영)

11)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인태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